

1574년 조헌과 허봉의 聖節使行과 보편으로서의 中華 문명

허태구*

〈차 례〉

- 머리말
- 허봉의 중국 관찰과 양명학 辨斥
- 조헌의 중국 견문과 明 文廟從祀 질의
-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574년 聖節使行團의 일원이었던 허봉과 조헌의 견문과 활동을 中華를 보편 문명으로 추구한 당대인의 心性 속에서 독해하려고 한 시도이다. 이를 통해, 허봉의 양명학 辨斥과 조헌의 明 文廟從祀에 대한 질의가 갖는 역사적 특징과 함의를 究明하였다. 나아가 양자의 사행 기록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새로운 시각에서 정리하였다.

[주제어] 조헌, 허봉, 중화, 보편 문명, 聖節使行, 양명학 辨斥, 明 文廟從祀 질의

* 본 연구는 2020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1. 머리말

1574년(선조 7) 5월 11일 조선의 聖節使行團이 한양을 떠나 북경으로 향하는 長途에 올랐다. 이 사행은 명나라 萬曆帝(1563~1620)의 萬壽節, 즉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 正使 朴希立(1523~1576), 書狀官 許箒(1551~1588), 質正官 趙憲(1544~1592)을 비롯한 36명 내외의 사행단은 같은 해 11월 3일 긴 여정을 마치고 도성에 귀환하여 선조에게 復命하였다.¹⁾

박희립은 『童蒙先習』의 저자 朴世茂의 조카였다. 박세무의 손자는 인조대 유명한 禮學家로 활동한 朴知誠였다. 따라서 박희립은 그의 從叔父가 된다. 허봉은 1575년(선조 8) 동·서 분당 이후 金孝元과 함께 동인의 영수가 된 許曄의 차남이었다. 이복형 許箒 역시 顯達한 인물로 선조 사망시 영창대군의 보호를 당부받은 遺教七臣 중 한 명이었다. 손아래의 同腹 남매로는 유명한 許箒과 許蘭雪軒이 차례로 있었다. 그는 부친 허엽을 통해서 徐敬德의 학풍을 이어받았고, 李滉으로부터는 직접 성리학을 배웠다. 柳希春의 門人이었으며 젊었을 때부터 文名을 떨쳐 사람의 衆望을 받았다.²⁾ 1583년(선조 16)에는 朴謹元, 宋應漑와 함께 李珥를 탄핵하다가 유배당했다. 이 사건이 유명한 癸未三竄이다. 이때를 전후로 조헌과 허봉은 조정에 함께 서기 어려운 政敵 관계로 변한다. 한편 허봉은 湖堂에서 같이 독서한 柳成龍의 도움으로 이듬해 해배되었으나, 조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전국을 유람하다가 1588년(선조 21) 38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반면, 조헌은 허봉과 달리 寒微한 가문 출신이었다. 李之菡, 成渾, 이이에게서 受學하였다. 붕당은 서인에 속했고, 강경한 상소를 자주 올려 정치적 입지의 浮沈이 적지 않았다. 1591년(선조 24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신

1) 이하 서술한 조헌과 허봉의 가계·사승관계·행적과 그들이 남긴 사행 기록에 대해서는 주로 아래 논문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윤남환, 『(하곡조천기) 해제』, 『국역 연행록선집』 I, 민족문화추진회, 1976; 박성봉, 『(동환봉사) 해제』, 『국역 연행록선집』 II, 민족문화추진회, 1976; 김지현, 『趙憲의 『朝天日記』에 대한 소고』, 『온지논총』 40, 온지학회, 2014; 후마스스무(夫馬進), 신로사 외 공역, 제6장 「개혁방안 『동환봉사』에 나타난 조헌의 중국 보고」, 『조선연행사와 조선통신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2) 尹國馨, 『聞韶漫錄』 “許箒美叔 草堂先生之第二子也 聰敏穎達 出人等夷 十歲前才華已發 名聞藉藉”.

을 보내 ‘假道入明’의 뜻을 전하자, 白衣 신분이었던 조헌은 持斧上疏를 올려 일본 사신의 목을 베고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진왜란 발발 이후에는 의병을 일으켜 항전하다가 1592년(선조 25) 8월 錦山 전투에서 僧將 靈圭와 함께 장렬히 殉節하였다.

허봉은 1574년 성절사행의 건문을 바탕으로 『朝天記』라는 일기체 사행 기록을 남겼다. 이것은 家藏筆寫本으로 전해지다가, 1707년(숙종 33) 그의 증손 許暉와 許奎가 편집한 중간본 문집인 『荷谷集』에 최초 포함되어 간행되었다. 조헌도 『朝天日記』라는 사행 기록을 남겼으나, 가장필사본으로만 전승되었다. 1748년(영조 24) 국왕의 명으로 중간본 문집인 『重峯集』이 간행될 때 처음 포함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조헌은 『조천일기』 외에도 성절사행과 관련된 저술을 또 하나 남겼는데, 이것이 유명한 『東還封事』이다. 그는 사행 직후 명의 제도를 모델로 한 24조의 개혁안을 구상한 뒤, 時務에 절실한 8조와 근본에 관계된 것 16조로 나누어 상소문을 작성하였다. 전자를 선조에게 올렸으나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택이 되지 않자 후자는 상소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 1622년(광해군 14) 그의 제자 安邦俊이 이 두 개의 상소문을 모아 편집한 뒤 『동환봉사』라 명명하였고, 그 뒤 1626년(인조 4) 순천 松廣寺에서 간행되었다. 이 초간본 『동환봉사』(奎5033)는 1666년(현종 7)에 간행된 조헌의 초간본 문집인 『중봉집』(奎5000, 5권 3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748년(영조 24)에 이르러서야 앞서 언급한 중간본 『중봉집』(奎4088, 20권 10책)이 간행되면서 『조천일기』와 『동환봉사』가 포함된 것이다. 초간본에 비해, 중간본 『중봉집』에 포함된 『동환봉사』의 내용이 훨씬 상세하다.

조헌과 허봉은 조선 전기 대명사행단 가운데 드물게 정밀한 산문체 사행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많은 선행 연구가 朴齊家의 『北學議』 序文에 조헌이 北學 사상의 원류로 언급된 점³⁾과 그가 임진왜란

3) 朴齊家, 『北學議』, 『序』 “余幼時 慕崔孤雲趙重峰之爲人 慨然有異世執鞭之願 孤雲爲唐進士 東還本國 思有以革新羅之俗 而進乎中國 遭時不競 隱居伽椰山 不知所終 重峰以質正官入燕 其東還封事 勤勤懇懇 因彼而悟己 見善而思齊 無非用夏變夷之苦心 鴨水以東千有餘年之間 有以區區一隅 欲一變而至中國者 惟此兩人而已”.

발발 직전 일본과의 단교 및 전쟁 준비를 소리 높여 주장한 사실⁴⁾에 주목하여, 『동환봉사』나 『조천일기』를 실용적·실학적 개혁론이나 유교적 經世論의 관점에서 높이 평가해 왔다.⁵⁾ 이와 달리 허봉의 『조천기』는 그의 陽明學 辨斥 활동과 관련하여 사상사 분야의 주목을 받았다.⁶⁾ 국문학회 등에서는 사행 문학으로서 그의 『조천기』가 갖는 장르적 특징과 아울러 대중국 인식의 주체적 성격에 주목하기도 하였다.⁷⁾

선행 연구의 흐름에서 벗어나 조헌과 허봉의 사행 기록을 16세기말 조선의 中華文物 수용과 대중국 인식의 성격에 집중하여 분석한 해외 연구도 잇달아 학계에 소개되었다.⁸⁾ 아울러 당대인의 趙憲象 변화를 史學史的 관점에서 추적한 연구,⁹⁾ 『동환봉사』 개혁안의 내용과 성격을 실학과 경세론이 아닌 中華와 性理學이란 키워드로 재해석한 연구도 제출되었다.¹⁰⁾

4) 『宣祖修正實錄』 권25, 선조 24년 3월 丁酉(1일).

5) 김용덕, 『重峯 趙憲研究』, 『성곡논총』 5, 성곡학술문화재단, 1972; 오세창, 『趙憲의 社會經濟思想』, 『대구사학』 7·8, 대구사학회, 1973; 김인규, 『重峯 趙憲 改革思想의 실학적 특성』, 『동양철학연구』 41, 동양철학연구회, 2005; 이상익, 『「東還封事」를 통해 본 重峯趙憲의 改革思想』, 『동양문화연구』 10,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2; 우용성, 『栗谷 李珣와 重峯 趙憲의 改革論 比較-『萬言封事』와 『東還封事』를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28, 간재학회, 2012; 장안영, 『「東還封事」에서 본 『朝天日記』의 특성 연구』, 『퇴계학논총』 25, 퇴계학부산연구원, 2015; 전재성, 『조천록을 통해 본 허봉, 조헌의 조명 관계 인식』, 『사행의 국제정치-16~19세기 조선·연행록 분석』(하영선·이현미 편저), 고려대학교 아연출판부, 2016 등.

6) 윤남한, 앞의 논문, 1976; 김동진, 『許葑의 大明使行과 陽明學 變斥』, 『문화사학』 21, 한국문화사학회, 2004; 하나, 『16세기 조·명 학자 사이의 학술논쟁-주자학 양명학 논쟁을 중심으로-』,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2018.

7) 한매, 『허봉 「조천기」의 연구』, 성균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최진경, 『許葑의 「朝天記」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이호윤, 『「하곡선생조천기(荷谷先生朝天記)와 중국인식』, 『아세아연구』 59-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박명숙, 『華夷論 관점에서 바라본 허봉 「朝天記」의 특징』, 『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 구지현, 『하곡(荷谷) 허봉(許葑)의 조천록 「조천기(朝天記)」의 위상과 의미』, 『한국문학연구』 6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

8) 후마스스무(夫馬進), 『趙憲「東還封事」に見える趙憲の中國報告』, 『中國邊境社會の歴史的研究』(谷川道雄 編), 京都: 京都大學文學部, 1989; 『萬曆二年朝鮮使節の中華「國批判」』, 『山根幸夫教授退休記念明代史論叢』, 東京: 汲古書院, 1990; 정태섭 외 공역,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07;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 名古屋大學出版會, 2015; 앞의 책, 2019. 일본어로 발표된 두 논문은 2007년 한국어 저서에 포함되어 출간되었다. 후마 스스무는 2015년에 일본어 저서를 새로이 출간하면서 앞서 발표된 두 논문을 상당 부분 수정하였다. 2019년의 한국어 저서는 이것을 국역하여 수록한 것이다.

9) 김성희, 『「조헌상(趙憲像)」의 변화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시대정신의 추이』, 『역사와 현실』 93, 한국역사연구회, 2014.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574년 성절사행의 실상과 역사적 함의에 대해서는 꽤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심도 있는 해석과 통찰이 필요한 지점도 있다. 예를 들어, 허봉의 양명학 辨斥 활동 및 조헌의 明文廟從祀 질의의 목적과 관련된 질문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조헌과 허봉의 관련 활동이나 발언의 목적을 주로 조선 내의 正學 수호 운동이나 文廟制 개혁, 이를 위한 明의 동향·정보 수집이나 선제적 조치, 동·서 분당과 연관된 정치적 주도권 확보 정도로만 이해하거나¹¹⁾ 나머지 연구는 관심 자체를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 조선 전기 사행의 임무에 대중국 정보의 수집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異見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1574년 성절사행 당시 양명학 변칙과 명 문묘제도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맥락이나 전후의 상황을 찬찬히 다시 분석해보면, 기존과 다른 해석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본 논문은 양자의 활동이 명의 학문 동향 파악을 넘어 자신들이 상정한 中華의 이상과 크게 어긋나 있던 明의 왜곡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당대 조선인의 心性에서 도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1392년 조선 건국을 전후한 시점에 조선의 지식인이 中華라는 同文同軌의 문명 의식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東國이라는 독자적 정체성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자에 의해 탐색된 바 있다.¹²⁾ 최근에는 조선 초의 文物 제도 정비가 中華를 보편 문명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제후국 조선을 중화의 기준에 맞추어 개혁하려는 당대인의 심성과 지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연구도 제출되었다.¹³⁾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조헌과 허봉은 중화를 보

10) 허태구, 「重峯 趙憲의 中國과 中華」, 『한국학연구』 5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11) 윤남환, 앞의 논문, 1976, 248쪽; 이호운, 앞의 논문, 2004, 851쪽; 후마 스스무(夫馬進), 앞의 책, 2019, 222쪽; 김문식, 「趙憲의 文廟制度 논의와 중국학자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93, 조선시대사학회, 2020, 7~9쪽 등.

12) 도현철, 「高麗末期 士大夫의 對外觀-華夷論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86, 진단학회, 1998; 채웅석, 「원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 현실』 40, 한국역사연구회, 2003;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지식산업사, 2010; 권선홍, 「유교의 예(禮)규범에서 본 전통시대 동아시아국제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4 등.

13) 최종석, 「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의 메커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 『조선시대 예교담론과 예제질서』(박종천 편), 소명출판, 2016; 「고려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 탄생과 내향화-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8장 「13~15세기 천하질서와 국가 정체성」, 『고려에서 조선으로-여말선초, 단절

편 문명으로 추구하는 中華人の 심성과 동시에 東國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는 朝鮮人の 심성을 동시에 지녔던 자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양자의 사행 활동에 드러난 특질과 역사성을 새로이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집필 의도라 할 수 있다. 거칠게 비유하자면, 아무런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보유한 신자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감정과 사고는 분명 결이 다를 것이다. 聖地 순례와 단순한 異國 관광의 차이,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점이 예민하게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헌과 허봉의 양명학· 문묘 관련 활동의 근본 목적 또는 動因에 대한 오해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究明을 위해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허봉의 양명학 변칙 활동을 필자의 시각에서 재정리해보고자 한다. 허봉은 성절사행 기간 내내 명나라의 士人을 만날 때마다 성리학을 옹호하며 양명학이 이단임을 논증·설득하려고 애썼다. 그의 이러한 활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기존에 주목받지 못한 여러 자료와 맥락을 부각해 논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조헌의 명 문묘종사 질의의 진정한 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활동 역시 허봉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제도 개혁을 위한 정보 수집에 局限해 볼 수 없는 여러 정황과 맥락이 포착된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 필자는 1574년 성절사행 당시 양자의 관련 행적과 발화가 조선의 正學 수호나 文廟制 개혁보다 中華의 이상에서 이탈한 명의 현실을 바로잡는 데 일조하고자 했던 개인적 열망에서 발현된 것임을 논증할 것이다. 아울러 각 장의 전반부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활동이 어떤 지적 환경이나 토대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점이 그들의 대중국 인식에 어떤 특징을 부여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관련하여, 성절사행단의 일원으로서 동일한 일정과 경로를 소화한 양자의 관찰과 견문이 어떤 지점에서 같았고 달랐는지도 함께 부각해보고자 한다.

2. 허봉의 중국 관찰과 양명학 辨斥

당대의 이름난 문장가, 관료, 학자로서 성리학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한 허봉의 행적은 그가 남긴 사행 기록인 『조천기』에도 무수히 남아 있다. 그는 명나라 土人 王之符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스승 李滉을 조선 성리학의 道統을 계승하는 宗主로 천명한 바 있으며,¹⁴⁾ 돌아가신 陶山先生을 꿈에 뵈고 『太極圖說』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는 일화를 남긴 바 있다.¹⁵⁾ 사행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개성부를 지날 때에는 또 다른 스승인 徐敬德의 묘를 참배하기도 하였다.¹⁶⁾ 후일 政敵이 되지만 道學을 매개로 한 이이와의 교류 기록도 적지 않은 분량으로 남아 있어 흥미롭다. 허봉은 자신의 서신을 坡州館을 지나가며 이이에게 보냈고 곧장 답신을 받았다. 더불어 이이가 자신에게 보내는 五言近體詩 한 편도 받았다.¹⁷⁾ 이로써 양자가 전근대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가장 고급의 의사 교환 수단이자 우호의 情表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시를 서로 주고받는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허봉은 다음날 이른 아침 이이가 거주하는 花石亭 밑의 栗谷을 방문하여 理氣一元을 비롯한 성리학의 핵심 개념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明德이 本心이고 良知는 天理가 아니라는 점, 斥王論이 피력된 羅欽順의 『困知記』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 등 양명학 배척과 관련된 주장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때 이이는 허봉에게 자신이 저술한 『聖學輯要』의 草本을 보여주었는데, 허봉은 立志處의 대목을 전부 필사하여 『조천기』에 상세히 남겨 놓을 정도로 공감을 표하였다. 그는 이 글이 “임금에게는 藥石이 될 만하고 공부하는 이에게는 길이 되면 모범이 될 것이니, 반드시 완미하여서 반복하여야 할 것”이라는 극찬을 남겼다.¹⁸⁾ 북경을 떠나기 얼마 전에는

14)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初三日. 본 논문에서 인용한 『하곡집』의 원문과 국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하였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역문은 일부 수정하였다.

15)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七月初十四日.

16) 許篈, 『荷谷集』, 『過江錄 附』 萬曆二年甲戌十月二十九日.

17)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上』 萬曆二年甲戌五月十二日.

18)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上』 萬曆二年甲戌五月十三日.

이이와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며 얼어 있는 배를 함께 먹는 꿈을 꾸기도 하였다.¹⁹⁾

당대를 대표한 士林의 일원답게 성리학적 가치에 기반한 安民과 節義, 移風易俗 등의 정신이 투영된 관찰 기록도 곳곳에 보인다. 허봉은 큰 가뭄으로 고생하는 沿道の 백성을 생각하며 밥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목이 메었고,²⁰⁾ 義理를 저버리고 私慾을 좇아 崔忠獻에게 빌 붙은 李奎報의 비루한 언행을 비난하였다.²¹⁾ 아울러 아래 사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怪力亂神의 힘에 의존하는 미신적 풍속이나 음란하고 외설스러운 風樂에 대해 지극히 道學者다운 코멘트를 남기기도 하였다.

술이 과하고 나서 나는 汝式(=조헌의 字)을 불러서 大興洞 泉石의 景勝을 탐방하고자 하여 靑山을 신고서 올라갔더니, 朴知進【字는 退而】 등 여러 사람이 많이 따라왔다. 이때에 하늘이 가물어 못에 虎頭를 빠뜨렸으니 이것이 항아리 속에 있는 蜥蜴(=도마뱀)을 두드려 비를 기원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아이들의 놀이에 비할 바이니 가소로울 따름이다.²²⁾

우리나라의 風樂은 歌曲이 음란하고 외설스럽고 소리가 슬퍼서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그 춤의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 경박하고 축급하므로 똑바로 볼 수가 없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바야흐로 또한 이를 즐겨 보며 밤낮을 다하여도 싫증을 아니 내니 유독 무슨 마음에서인가? 그런 행위로 神과 人間을 조화시키고 위와 아래가 질서 잡히기를 구하니 또한 이상하지 아니한가?²³⁾

禮樂의 제도 시행을 문명 中華 실현의 수단이자 기준으로 보았던 당대의 성리학자들에게 이것은 풍속의 문제를 넘는 教化와 政治의 문제였다. 중요한

19)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下』 萬曆二年甲戌九月一日.

20)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上』 萬曆二年甲戌五月三十日.

21)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上』 萬曆二年甲戌五月十四日.

22)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上』 萬曆二年甲戌五月十五日.

23)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上』 萬曆二年甲戌五月二十三日.

점은 허봉이 동일한 시선과 잣대를 가지고 현실의 중국이자 上國인 명나라의 官人과 풍속도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허봉 일행은 이유 없이 조선 사신을 괴롭히며 무리한 뇌물을 요구하는 명의 관인에 대해 道理, 禮義, 廉恥, 華夷 등 中華의 言語와 가치 체계를 동원하여 응전하며 그들을 비난하였다.²⁴⁾ 허봉은 禮教·禮治가 시행되지 않으며 道教·佛敎의 異端이 숭앙받는 명의 현실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비판을 남겨 놓았다. 喪中임에도 서슴지 않고 술과 고기를 먹는 湯站의 김씨 4형제를 보았을 때는 오랑캐의 풍속을 떠올렸고,²⁵⁾ 遼東都司가 주최한 연회에서 공연된 명의 음란한 風樂과 무리한 雜戲는 조선보다 저질이었다고 혹평하였다.²⁶⁾ 민간에서 上帝를 제사지내는 玉皇廟를 지나면서는 하늘을 무시하고 귀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²⁷⁾ 天子가 아닌 자가 하늘에 지내는 제사는 그의 기준으로 볼 때 分義에 어긋나는 僭越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王化를 덜 입은 변방의 요동뿐만 아니라 天子가 臨御하는 京師(=북경)에서조차 道·佛이 존송되는 풍조를 목격하고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다.²⁸⁾ 명의 과중한 세금과 부역을 목도했을 때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조선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했다.²⁹⁾

이처럼 허봉이 中華의 기준과 道學의 가치에 부합하지 못한 명의 현실을 비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허봉이 ‘명조=중화’에 대한 회의에 빠졌다고 평가하거나,³⁰⁾ ‘東周 禮文明’의 일원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허봉이 양국을) 동등한 입장으로 인식한 성향이 강했다는 식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³¹⁾은 그의 사행 기록을 다소 단편적으로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

24) 후마스스무(夫馬進), 앞의 책, 2019, 212~220쪽 참조.

25)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上』, 萬曆二年甲戌六月十七日.

26)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上』, 萬曆二年甲戌六月二十七日.

27)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上』, 萬曆二年甲戌六月二十八日.

28)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十三日 “余平日竊怪崔錦南評中國之俗曰 尙道佛崇鬼神 以爲中華文物禮樂之所聚 彼遐荒僻村則容或有禱祀之處 而烏有舉天下皆然之理 今而目擊 則斯言誠不誣矣 夫以京師四方之所會 而彼乃肆行無忌如斯 則必是在朝之人聞見習熟 而不爲汲汲然救正之計故也 吁 其可謂怪且駭也”.

29)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七月二十九日; 『朝天記 下』, 萬曆二年甲戌十月五日.

30) 이호윤, 앞의 논문, 2016, 75쪽.

31) 박명숙, 앞의 논문, 2017, 277쪽.

해이다. 각론에서는 불만이 있었지만, 총론에서 보면 中華의 본고장이자 時王의 나라인 명에 대한 허봉의 인식은 분명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그가 명의 인심, 제도, 통치에 대해 긍정적 기록 또한 수없이 남겼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西平堡에서 숙박한 집주인의 12살짜리 외손 王三重은 進退할 때 揖하는 예절이 능숙하여 감탄을 자아냈다.³²⁾ 山海關 主事 裴賜의 접대는 극진했으나 禮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고 그가 지키는 요새의 방어 태세는 정연하고 엄중하였다.³³⁾ 통치의 근본이 되는 황제의 勤學은 지극하였으며,³⁴⁾ 사행의 짐바리 검사를 형식적으로 시행할 정도로 禮義之國 조선을 우대하는 明의 조치는 각별했다.³⁵⁾

무엇보다 허봉은 제후국으로서 조선의 위상과 명 황제의 天下 통치라는 이상과 당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일말의 불쾌감도 표하지 않았다. 중국의 역대 登科錄에 수록된 고려인의 명단을 보았을 때는 명 태조 洪武帝가 制科를 폐지한 사실을 안타까워했으며,³⁶⁾ 藩國의 신하, 즉 外臣을 조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명의 일시적 조치에 대해서는 안도감이 아니라 아쉬움을 표하였다.³⁷⁾ 명조의 관원, 西蕃·獐子·라마의 사신 등과 함께 장엄한 예식이 거행되는 聖節賀禮에 참여해서는 “大一統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는 평을 남겼으며,³⁸⁾ 賞恩을 받기 위해 참석한 朝會에서 황제를 얼굴과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 접하게 되었을 때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기록에 남겨 놓았다.³⁹⁾ 사행을 마친 다음해(1575) 10월 『조천기』의 後跋를 쓸 때에도 懷柔遠人하는 마음으로 제후국 조선 사신을 우대한 명 황제의 은혜를 칭송하였다.⁴⁰⁾ 『조천기』의 독자가 明人이 아닌 朝鮮人임을 감안한다면, 이 구절은

32)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七月二日.

33)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七月十八日, 十九日, 二十日.

34)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下』, 萬曆二年甲戌九月七日.

35)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三十日.

36)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七月二十三日.

37)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七日.

38)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十七日.

39)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下』, 萬曆二年甲戌九月三日 “晴 是日詣闕受賞…今日 臣等望見天威甚遙 龍顏壯大 語聲鏗然 不勝歡喜之極”.

40) 許篈, 『荷谷集』, 『朝天記 後跋』, “我國家事皇朝 禮均內服 凡吉凶慶弔 皆遣使焉 惟八月十七日 實我

그의 진심을 토로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한편, 보편 中華를 지향하는 天下人으로서 중화 문명의 聖地를 방문할 때의 감격과 기쁨도 생생하게 남겨 놓았다. 평양의 箕子墓를 방문했을 때는 기자의 東來를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였고,⁴¹⁾ 북경 國子監의 유적을 보았을 때는 그 하나하나를 방대한 분량으로 전례 없이 꼼꼼하게 기록하였다.⁴²⁾ 특히 石鼓의 마멸된 글자를 번각해 새겨놓은 碑를 만질 때에는 주나라의 성대한 禮를 떠올리며 억누를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⁴³⁾ 그 석고가 주나라 宣王 때의 유물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귀국길에는 伯夷와 叔齊의 夷齊廟를 방문하여 그 경관을 상세히 기록에 남겨 놓았다.⁴⁴⁾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허봉의 태도나 심성이 조선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沒主體의인 것이었다고 규정하면 안 된다. 당대 조선인은 事大의 명분 못지않게 字小의 명분 또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조선 국왕의 통치권은 ‘聲教自由’의 명분 아래 보장되는 것이 常例였다. 물론 명의 강압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조선의 君臣들은 이것이 결코 의리와 명분에 부합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리 명 황제나 관료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義理에 합당한가의 여부를 따져 준행하는 것이 당대 조선인의 심성과 태도에 가까웠다. 따라서 중화를 보편 문명으로 추구하고 제후국으로서의 分義를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과 명과의 외교 현장에서 조선의 국익을 치열하게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큰 모순 없이 공존하였다고 할 수 있다.⁴⁵⁾

今皇上聖誕之辰也…及渡江而西也 歷遼陽廣寧山海關等處 皆致下程存問 禮際諄悉 無非所以宣聖澤而柔遠人者也…嗚呼 皇恩汪濊 自顧僻遠之氓 宜將何以報塞也”.

41) 許筭, 『荷谷集』, 『朝天記 上』, 萬曆二年甲戌五月二十六日 “恭惟我箕子遭時明夷 敏大惠於偏方 以成八條禮義之教 雖爲聖人之不幸 而實我東方之大幸也”.

42) 許筭,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二十日.

43) 위의 각주 “東豎一石碑 愜山潘迪書 蓋記石鼓字之可辨者 翻以楷書 令世人易識者也 余等摩挲歎息 宛然若目觀岐山大蒐之盛禮 不勝有千古無窮之感”.

44) 許筭, 『荷谷集』, 『朝天記 下』, 萬曆二年甲戌九月十三日.

45) 권선홍,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160~163쪽; 최중석, 『조선 초기 국가 위상과 ‘聲教自由’』,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2013, 21~23쪽;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禮), 그리고 중화(中華)』, 소명출판, 334~336쪽 참조.

1488년(성종 19) 명에 표류하다 구조되어 謝恩入朝를 위해 紫禁城에 들어가게 된 崔溥가 喪服을 벗고 吉服을 입으라는 명 관원의 요구를 天(理), 禮, 義, 名(分) 등 중화와 성리학의 가치 체계를 구성하는 용어로 논박한 것⁴⁶⁾과 명 측의 끈질긴 심문에도 조선에게 불리한 기밀 정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것⁴⁷⁾도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명에서 유행하고 명 측이 권장하였던 양명학을 조선이 강력하게 배척하였던 것도 당시 양국 관계의 자율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⁴⁸⁾ 이상의 배경 지식을 토대로 이제부터는 양명학 변척과 관련된 허봉과 행적과 발언을 간략히 정리해보고, 이것이 갖는 새로운 함의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의 양명학 변척과 관련된 철학적 논쟁점은 선행 연구에서 여러 차례 검토된 바 있으므로⁴⁹⁾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1574년(선조 7) 6월 26일 요동성의 正學書院을 방문한 허봉은 生員 賀盛時·盛壽 형제와 魏自強, 呂沖和와 우연히 만나 명의 학문 동향에 대한 筆談을 나누었다.⁵⁰⁾ 그는 王守仁을 文廟에 從祀하는 조치의 타당성 및 양명학의 僞學性 여부를 놓고 4인의 생원과 장시간 문답을 주고받았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가 이미 뚜렷한 목적과 정해진 정답을 가지고 筆談에 임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태도 역시 학문 동향 파악을 위한 일상적 문의라고 하기에는 論戰을 방불할 정도로 치열했다는 사실이다.

내가 가만히 들으니, 近日 王守仁의 사특한 주장이 성행되고 孔·孟과 程子, 朱子の 道는 막혀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찌 道가 없어지려고 해서 그렇겠

46) 허태구, 앞의 논문, 2020, 455~456쪽 참조.

47) 崔溥, 『漂海錄』 권1, 閏正月二十日 “又問曰 你國有金銀否 曰 金銀非本國所產 曰 然則何以有金銀帶 曰 皆來質上國 所以貴也”; 『漂海錄』 권1, 閏正月二十一日 “又問曰 汝國地方遠近幾何 府州幾何 兵糧約有幾何 本地所產 何物爲貴 所讀詩書 尊崇何典 衣冠禮樂 從何代之制 一一寫述 以憑查考 臣曰…兵糧則我以儒臣 未曾經諳 未詳其數 又問曰 汝國與日本琉球高麗相通乎 臣曰 日本琉球 俱在東南大海中 相距隔遠 未相通信” 등.

48) 조선시대의 양명학 배척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윤남한, 『朝鮮時代의 陽明學 研究』, 집문당, 1974, 115~200쪽 참조.

49) 김동진, 앞의 논문, 2004, 833~842쪽; 최진경, 앞의 논문, 2011, 32~38쪽; 이호윤, 앞의 논문, 2016, 61~71쪽; 하나, 앞의 논문, 2018, 321~327쪽 등.

50) 許篈, 『荷谷集』, 『朝天記』上, 萬曆二年甲戌六月二十六日.

소이까? 원컨대 그 다른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可否를 명확히 보여 주십시오.⁵¹⁾

슬프다! 왕수인의 從祀는 王安石과 王雱의 配享과 더불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마땅히 毀撤할 것이요 天地의 사이에서는 반드시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이 끝나면 사귀를 해치게 하는 것이니, 잘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⁵²⁾

위의 사료에서 보이듯이 明의 생원 4인과 학문을 논하는 허봉의 태도를 보면 배움의 겸손한 자세나 上國 士人の 학문적 권위에 굴종하는 비굴함 등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자 존숭’이라는 도학의 진리를 明이라는 上國에 전파하려는 그의 강렬한 의지만 느껴질 뿐이다. 필담을 마친 허봉의 소감을 들어보면 이 논전의 근본 목적이 조선의 斥王 조류를 강화·고무하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邪說로 오염되어 聖廟의 儀禮를 훼손한 明의 조치를 조선에서 벌어진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며 彝倫과 斯道の 회복을 위해 明의 사인을 설복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본다면, 오늘의 천하에는 다시 朱子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邪說이 橫流하고 禽獸가 사람을 핍박하니, 彝倫이 장차 滅絶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국가가 장차 멸망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선비된 자가 서로 현혹되어 만 사람의 입에서 하나의 말만 나오니, 비록 사특한 것을 물리치고 올바른 것을 높이는 의논을 石·趙(인용자: 인명 미상) 두 분처럼 하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從祀의 대열에 제사 지내니, 聖廟를 모독함이 큰 것이었다. 슬프다! 斯道가 이미 쇠하여 다시는 지탱할 수 없게 되었으니, 오늘날을 위하는 계책으로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⁵³⁾

이어서 7월 25일에는 明의 고위 관료 嚴崇이 저술한 『南宮奏議』에 수록된

51) 위의 각주.

52) 위의 각주.

53) 위의 각주.

장문의 『薛文清從祀覆議』를 보자 그대로 『조천기』에 베껴 놓았다. 이 자료는 景泰 연간의 관료이자 도학자였던 薛瑄의 문묘 종사 여부를 놓고 嘉靖 연간 (1522~1566)에 上奏된 관료들의 주장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허봉은 이 자료를 읽은 뒤 “世道가 안타까워서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평을 남겨 놓았다.⁵⁴⁾ 世道の 영역에 조선만이 아니라 명이 상정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8월 2일에는 順天府 노상에서 國子監 生員 葉本을 만나 良知說의 문제점, 『大學章句』를 개정하고 주자를 모독한 왕수인의 언행을 놓고 필담을 나누었다. 양자의 토론은 생원 하성시 등과의 논전과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달렸다. 허봉은 이때에도 ‘주자 존숭’이란 정해진 답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였다.⁵⁵⁾ 8월 3일에는 우연히 같은 집에 숙박하게 된 陝西省 출신 舉人 王之符와 함께 명의 학문 동향, 양지설의 是非, 왕수인의 문묘 종사 여부에 대해 필담과 함께 譯官을 대동한 대화를 나누었다. 왕지부는 그간 만났던 생원들과 달리 양명학을 僞學이라 부르는 자였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斥王에 관한 이야기는 금방 종료되었고, 각자의 지역에서 聖學, 즉 道學을 계승한 자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것으로 화제가 전환되었다.⁵⁶⁾ 왕지부와 만났던 대화를 마친 허봉은 同道를 추구하는 斯文의 일원을 먼 타국 땅에서 만났다는 기쁨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오늘날은 사람마다 모두 王氏(=왕양명)의 학문을 추앙하여 千古의 비밀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왕지부만이 홀로 이를 배척하니 미처 날뛰는 물결 속에 선 砥柱라고 이를 만났던 것이었다. 나는 수천 리를 와서 비로소 이런 사람을 얻었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닌가.⁵⁷⁾

54)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七月二十五日.

55)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二日 “余曰…篈平生所願 欲學朱子 而未之有得 獨於背朱子而妄出他意者 則言之及此 不覺痛心 此所以斥陽明爲異端 而不容有小避 伏望珍砑可否”.

56)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三日.

57) 위의 각주.

8월 20일에는 북경의 國子監을 참배하던 중 應天府 高淳縣 출신의 監生 楊守中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양명학이 僞學이며, 양명의 문묘 종사가 天下의 通論이 아니라는 흡족한 대답을 들은 허봉은 촉박한 일정 때문에 그와의 대화가 급히 종료된 것을 매우 아쉬워했다.⁵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봉의 양명학 변척이 기존 설명처럼 조선의 斥王 운동 및 문묘 종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거나 동·서 분당을 앞에 두고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근거는 희박해 보인다. 일단 그와 만난 명의 사인은 고위 관료가 아니라 生員·舉人에 불과한 자들이었다. 그 접촉 역시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 만남에 불과했다. 정작 명 禮部의 (고위) 관료를 만났을 때 宗系辨誣와 같은 다른 현안은 얘기한 그였지만 척왕에 대한 사안은 교섭은커녕 언급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⁵⁹⁾ 이것은 그의 양명학 변척 활동이 사행으로서의 공식 업무가 아닌 개인적 교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시사한다. 上國 명의 제도를 제후국의 일개 사신이 외교 현안으로 언급하여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는 명분으로 보아도 온당치 않았고 事勢로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1574년 성절사행 이전 조선의 양명학 배척 분위기와 관련해서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⁶⁰⁾ 왕수인의 가르침을 담은 『傳習錄』 초간본이 1518년(중종 13) 명에서 발간된 직후 그 내용이 조선에 전래되었고, 16세기 전반부터는 척왕의 변을 담은 명의 이단변척서가 조선에 수입된 상태였다. 1566년(명종 21)에는 이황이 유명한 『傳習錄論辯』을 저술하여 양명학 비판의 본격적 기치를 내걸었다. 왕수인을 문묘에 배향하고자 하는 명의 동향도 1573년(선조 6) 賀登極使 朴淳의 보고로 이미 조선에 알려진 바 있었다.⁶¹⁾ 이처럼 명의 양명학 관련 동향이나 정보 역시 허봉의 성절사행 이전에 상당한 축적된 상

58)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二十日.

59)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九日, 八月十二日, 八月十八日 등.

60) 관련 논의는 주로 김태년, 「16世紀 朝鮮 性理學者들의 陽明學 비판 연구」, 『한국사상사학』 19, 한국사상사학회, 2001, 154~157쪽; 김동진, 앞의 논문, 2004, 833~838쪽 참조.

61)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1월 戊戌(17일).

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양명학 변칙을 곧이 조선 내의 척왕 조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양명학의 수용 여부가 명의 압력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2장에서 후술하듯이 조선의 문묘제 개혁 또한 명의 제도를 참고한 것은 맞지만 곧이곧대로 따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조선 초 문물 제도 정비를 時王之制 담론의 구조와 성격을 통해 규명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조선이 중화 문명을 보편과 당위로 추구하고 그와 연관된 제도를 국내에 구현하려고 애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개별의 시왕지제, 즉 개별의 명제를 무비판적으로 자동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외교 현장의 교섭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의리와 명분, 보편과 分義, 조선의 風土와 習俗 등과 같은 여과망을 거친 뒤 취사선택되었기 때문이다.⁶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천기』에 기록된 斥王 활동의 대상은 조선이 아닌 이단과 사설에 오염된 명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활동의 배후에는 ‘명이 단순한 異國·大國이 아니라 동일한 문명과 가치를 공유하는 道와 文의 공동체이자 문명 中華에 속한 天下’라는 당대인의 心性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中華人이자 朝鮮人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던 허봉에게 禮와 道는 조선과 명의 국경을 넘어 天下에 보편적으로 구현되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양명학 변칙 활동이 공적 차원에서 실효적 효과를 노리고 기획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명 중화의 이상에서 이탈한 명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에는 그가 가진 열망에 비해 현실적 수단이 전무했으며, 陪臣이 上國의 內政에 간섭한다는 越分の 혐의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양명학 변칙은 개인적 교류의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증하듯이 柳成龍이 쓴 『조천기』 序와 허봉이 쓴 後敍의 한 구절은 使行의 自願 목적이 명의 문물과 제도를 견문하는 데 있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의

62) 최종석, 『조선초기 ‘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 『조선시대사학보』 52, 조선시대사학회, 2010, 16~38쪽 참조.

번역 활동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수적 활동의 하나였던 것이다.

美叔(=허봉의 字)은 나이 겨우 弱冠에 이미 천하의 책을 모두 읽어서 文學과 詞章으로 조정에 명성이 있었고, 또한 中國 땅을 밟고서 天下의 奇觀을 모두 보고 자 하였는데, 조정에서 사신을 선발한다는 말을 듣자, 여러 사람을 대하여 가보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銓官이 그를 추천하여 보내게 되었으니, 그의 뜻이 이미 알지가 않았던 것이다.⁶³⁾

내 일찍이 멀리 가보고자 하는 뜻을 지녔다가 다행히도 王事로 인하여 그 숙원을 풀었던 것이다. 여행 길에서는 지나는 곳마다 그 산천의 웅장함과 인물의 번창함을 보고 항상 이를 눈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며, 옛일을 참고하고 오늘에 비추면서 簡牘에 갖추어 바구니에 넣어 두었다가 오래 된 뒤에 꺼내었더니 이미 쌓여서 책이 되었다.⁶⁴⁾

3. 조헌의 중국 견문과 明文廟從祀 질의

후일 봉당이 갈라져 政敵이 되었지만, 당대의 士林이자 성리학자로서 조헌의 학문적 품모는 앞에서 검토한 허성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이와 관련된 언행은 그의 사행 기록인 『조천일기』 곳곳에 보인다. 정사 박희립과 함께 파주에 있는 이이를 방문하여 사행의 의례와 복식에 대해 물었고,⁶⁵⁾ 成渾으로부터는 굳이 방문하지 말리는 서신에 이어 자신을 단속하고 직분에 충실하라는 두 번째 서신을 받았다.⁶⁶⁾ 貢生을 만날 때에는 『小學』을 공부하고

63) 許篈, 『荷谷集』, 『朝天記序』(柳成龍 作).

64) 許篈, 『荷谷集』, 『後敘』.

65)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五月十三日. 본 논문에서 인용한 『중봉집』의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하였다. 『朝天日記』의 번역은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가 2014년 출간한 국역본을 활용하였고, 『중봉집』의 번역은 중봉집번역발간추진회의 1973년 국역본을 참조하였다.

66)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五月十二日.

있는지 확인하였다.⁶⁷⁾ 『儀禮經傳』과 『春秋集傳』 등의 서적을 구입하였으며, 명 조정의 儒臣을 禮로써 대우한다는 기록을 보았을 때는 부러운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⁶⁸⁾

동·서 분당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 정황도 꽤 보인다. 허봉의 부친인 大司成 허엽은 글로 조헌을 권면하였고,⁶⁹⁾ 南冥 曹植의 격언을 접하고 감명을 받은 조헌은 그의 행적을 고이 기록해 두기도 하였다.⁷⁰⁾ 상사 박희립과는 不和한 듯 부정적 묘사가 많은 반면,⁷¹⁾ 7살 아래인 허봉과는 道學과 일상에 대해 종종 대화를 나누거나 우스갯소리도 서로 하는 사이였다.⁷²⁾

이처럼 허봉과 동일한 시대, 세계관, 가치관을 공유하였던 조헌의 사행 견문과 중국 인식 또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땅 안주에서는 심부름꾼의 굶주림을 걱정하였으며,⁷³⁾ 명 지방관의 탐욕으로 침탈당하는 백성들을 목격하고는 목민관 선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⁷⁴⁾ 명 관원의 뇌물 수수 여부를 물었을 때 “지금 관원이 된 자 중에 돈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대답을 듣자 기록을 남겨 후일의警戒로 삼고자 했다.⁷⁵⁾

허봉과 비슷하게, 喪中에 고기를 먹고 노름을 하는 湯참의 김씨 4형제가 몇 부린 自號만 갖고 있다는 사실을 경멸조로 적어 놓았다.⁷⁶⁾ 그가 보기에

67)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五月十七日, 五月三十日.

68)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七月二十五日.

69)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六月十三日.

70)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五月十七日.

71)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五月二十一日 “永麟以不干人稱使三子弟到處乘駟 責辦供具 郡守言其狀 書狀執而囚之 將欲請罪 使屢使人求放不已 枷到平壤 不得已釋之”; 萬曆二年甲戌七月十五日 “他日使謂余曰 聞君與鄭押馬交密云 曩何不救乎 余於平日 素知其已言之難入故也”; 『重峯集』 권11, 『朝天日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十五日 “大春以禮當冠帶拜受之 意告之 使曰 孰開前無之例乎 曰 李參判後白也 使盛怒 俾議于書狀 書狀不敢違其意 使又罵曰 爾何每舉新禮以動我乎 竟臥而受之 卽賤而散之” 등.

72)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六月九日 “【書狀以書戒其放心】 朝見張醫道 有心恙 難以藥救 書狀聞之 以書戒之曰 萬般補養皆虛偽 只有操心是要規 此心一存 則二豎子退聽矣 眞藥石也”; 萬曆二年甲戌七月四日 “夜與美叔同話 覺有自欺之病 而言脫口 改不得也”; 萬曆二年甲戌七月二十七日 “【將行 與美叔偶出戲言】” 등.

73)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六月一日.

74)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七月二十九日 “嗚呼 世祿之家 不可無養 而愚無知者 則反貽民害如此 民牧之選 可不謹哉”.

75) 趙憲, 『重峯集』 권11, 『朝天日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五日.

76)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六月十七日.

명 측이 배운 樂舞는 번잡하고 사치스럽기만 할 뿐 正樂이 아니었으며,⁷⁷⁾ 泰山을 제향하는 東岳廟는 장엄하고 화려했지만 義理에 부합하지 않는 淫祀였다.⁷⁸⁾ 永平府에서는 경미한 병에도 巫堂을 불러 치성을 드리는 풍속이 성행이었고,⁷⁹⁾ 通州에서 北京에 이르는 길가에는 佛寺와 더불어 仙宮(=道觀)이 즐비하였다.⁸⁰⁾ 天壇의 부속 건물은 너무 사치스럽고 화려해 上帝가 歆饗하여 降臨하기에 마땅한 곳이 아니었다.⁸¹⁾ 조선 사신 일행만 참여한 會同館의 술자리에서는 嘉靖帝의 親父 興王을 追封해 興獻 황제로 삼은 일의 부당함이 논의되었다.⁸²⁾

이처럼 조헌 역시 중화 및 성리학의 언어와 가치 체계로 명의 현실을 관찰하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허봉과 동일하게 이러한 중국 견문이 중화적 세계관에 근본적 회의나 전환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조헌은 자신의 사행을 大國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부끄러운 행위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문명 중화의 세계를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된 감동과 기쁨을 가감 없이 표출하였다. 조선의 至誠事大, 명의 지극한 우대, 천자 알현 등에 대한 자부심과 감격이 『조천일기』 곳곳에 남아 있다.⁸³⁾ 특히 북경 국자감의 시설과 분위기를 정밀한 시선으로 상세히 기록하며 학문의 쇠락을 걱정하고 한탄하였다.⁸⁴⁾ 淸聖祠, 즉 夷齊廟 일대를 방문을 마치고 난 뒤에는 外服의 陪臣으로서 오랑캐의 격퇴와 皇朝의 안녕을 희구하는 시를 남기기도

77)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六月二十七日; 『重峯集』 권11, 「朝天日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十六日.

78)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七月五日.

79)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七月二十四日.

80) 趙憲, 『重峯集』 권11, 「朝天日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四日.

81) 趙憲, 『重峯集』 권11, 「朝天日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二十五日.

82) 趙憲, 『重峯集』 권11, 「朝天日記 中」, 萬曆二年甲戌九月二日.

83) 趙憲, 『重峯集』 권11, 「朝天日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九日 “今上年甫十二 而凝若老成 移時瞻望 曾不少動 且爲外人親降聖諭 玉質淵秀 金聲清暢 一聞沖音 感涕先零 太平萬歲之願 自此愈切”; 八月二十六日 “皇上視朝 命禮部尚書萬士和 待陪臣筵宴於會同館 東俗所謂上馬宴也 他外國則止有下馬一宴 而我國使臣 則別設二宴以慰之 其見寵厚如此”; 八月三十日 “開會同驗包之際 他外國人之包 則無不悉解以見 而我國下人之包 亦不開見云”; 九月七日 “嗚呼 聖年纔至十二 而君德已著如此 若於後日長進不已 則四海萬姓之得受其福者 豈有遠邇之間哉” 등.

84) 趙憲, 『重峯集』 권11, 「朝天日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二十日 “至敬一亭則果有刻四勿箴心箴及各朝御製【憲徵難見】 嘉靖所製敬一箴之碑而已 惟置屏處 而不在師生觀瞻之地 將何教學 以警心目乎 果知中朝之人不尚斯學也…大抵齋舍荒涼 間有頽落處 庭草芊綿 極可嘆傷也”.

하였다.

성덕은 먼 나라의 신하에게까지 두루 미치고[聖德遍覃遠國臣]
 난하는 장구히 나무를 통과하는구나[灤河千古作通津]
 어떻게 이 맑은 물을 떠서[何緣挹此清流水]
 음산의 오랑개가 일으킨 먼지를 영원히 씻을까?[永洗陰山胡虜塵]⁸⁵⁾

이처럼 조헌과 허봉은 중국 관찰과 인식에 유사한 행보를 보였지만, 미묘하게 상이한 지점도 없지 않았다. 우선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허봉은 양명학 변척에 주력하였지만, 조헌은 그보다 명 문묘 제도의 개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조헌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지 않은 분량의 기록을 남긴 명의 鄉約에 대해서도 허봉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분량은 차치하고라도 허봉이 한 차례만 향약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에 비해,⁸⁶⁾ 조헌은 네 차례에 걸쳐 허봉보다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⁸⁷⁾ 만백성의 教化와 禮治라는 목적은 양자가 동일하였지만, 그 수단과 방법으로 명의 향약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헌이 귀국 즉시 상소를 올려 향약의 빠른 시행을 주장한 반면,⁸⁸⁾ 허봉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1514년(중종 19) 己卯士禍 이후 조선의 향약 시행 논의를 ‘黜舊-士林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틀에서 이해하려 한 통설을 비판하는 연구가 제출되기도 하였다.⁸⁹⁾ 이 논문의 필자는 이른바 ‘사림과 훈구의 대립’이 종식되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선조대에도 향약 시행과 관련된 논의가 여전히 중종대의 그것과 유사한 논쟁점을 갖고 지속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효율적인 향촌 사회의 통제와 지배’라는 국가적 사안에 대한 지배층 간의 견해차

85) 趙憲, 『重峯集』 권11, 『朝天日記 中』, 萬曆二年甲戌九月十三日.

86) 許篈, 『荷谷集』, 『朝天日記 中』, 萬曆二年甲戌七月二十日.

87)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七月二十日; 七月二十二日; 『重峯集』 권11, 『朝天日記 中』, 八月二日, 九月七日.

88) 趙憲, 『重峯集』 권3, 『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 甲戌十一月.

89) 허준, 『朝鮮 中宗-宣祖代 鄉約 施行 論議의 政治的 意味』, 『지역과 역사』 47, 부경역사연구소, 2020.

가 향약 시행 찬반 논의의 본질이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허봉의 스승 윤희춘이 향약 시행을 반대한 반면, 허봉의 아버지 허엽은 향약을 찬성 하였듯이 말이다.⁹⁰⁾

주지하다시피 허봉의 『조천기』가 조헌의 『조천일기』보다 분량이 훨씬 더 많다. 이것이 과연 선행 연구의 지적대로 오로지 양자의 학식과 전문 차이에 비롯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⁹¹⁾ 서장관과 질정관이란 직위와 임무의 차이에서 발생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양자의 취향이나 관심 대상이 달라서 발생한 현상일 수도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동일한 주제를 기술할 때 드러나는 개성 혹은 감성의 차이가 종종 엇보인다는 점이다. 아래 大同江의 묘사에서 드러나듯이, 허봉의 경우 문학적·수사적 표현을 동원하여 대상을 그린 듯이 서술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조헌은 대상의 정밀한 묘사보다 주변 상황의 사실적 전달에 주력하는 듯하다.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정오가 미처 못되어 평양으로 향하였는데, 長林이 좌우를 끼고 덮고 가려서 하늘을 찌를 듯하니, 그 사이를 걸어갈 때 서늘하기가 마치 얼음이나 눈 위를 걷는 것 같아서 땀을 닦는 괴로움을 아주 잊게 하였다. 때마침 맑은 물결 한 줄기가 있어 숲 밖으로 희미하게 보였으니, 곧 大同江이었다. 숲이 다하고 길이 끝나서 강변에 이르러 바라보니, 큰 강이 동쪽에서부터 내려와서 급한 물줄기가 城을 삼키려는 듯이 아래로 꺾어져서는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粉堞이 둘러 있고 樓臺가 군데군데에 있어서, 완전히 仙人이 거처하는 듯하였으니 중국 사람이 평양을 蘇州나 杭州에 비긴 것도 그럴 듯하였다.⁹²⁾

대동강에 이르니 監司 李文馨 공께서 술을 차려 놓고 맞이하며 위로해 주었다. 都事 李希得과 察訪 金希弼도 위로연에 참석했다. 그런 듯한 배와 맑게 갠 강이 매우 맑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앞에 가득 차려진 음식에 금과리가 떼 지어 물러들

90) 허준, 앞의 논문, 2020, 126쪽.

91) 윤남한, 앞의 논문, 1976, 250쪽.

92) 許簪, 『荷谷集』, 『朝天記 上』, 萬曆二年甲戌五月二十二日.

었고, 무더위와 기쁨이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노래와 악기가 서로 뒤섞여 시끄러우니 온화하고 맑은 마음이 짝 가셨다.⁹³⁾

협소한 지면 탓에 국역문을 미처 소개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박연폭포 방문에 대한 양자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다.⁹⁴⁾ 전체적으로 허봉이 풍부한 고사와 문학적 수사를 동원하여 대상에 대해 보다 상세한 묘사를 남겨 놓은 것 같다. 요컨대 허봉의 『조천기』가 조선 후기의 다소 지리한 묘사가 이어지는 燕行錄 類에 살짝 더 가까운 느낌이다.

군사 문제에 대한 관심, 오랑캐의 침입과 약탈, 이로 인한 백성의 희생과 장수의 殉節 등은 양자의 사행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주제이다. 그러나 그 빈도나 관심의 정도는 조헌 쪽이 훨씬 더 높다. 예를 들어 그는 조선 경내의 鐵州故城을 지나면서 몽골 침입시 순절한 고려의 牧使 李元禎과 判官 李希勳의 절개를 기렸고,⁹⁵⁾ 遼東衛 일대를 지날 때에는 명과 조선의 북변 방어를 비교하였다.⁹⁶⁾ 寧遠衛 일대를 지날 때에는 오랑캐의 침입으로 살육당한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했고,⁹⁷⁾ 북경에 머물면서는 매일 아침 훈련하는 明軍의 대포 소리를 들으며 조선의 방어 태세를 걱정했으며,⁹⁸⁾ 永平府를 통과하며 오랑캐의 침공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방어책을 일행에게

93)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五月二十二日.

94) 許篈, 『荷谷集』,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五月十五日 “朝發開城 歷迎賓館普通院 向朴淵 路甚險巖 將至洞口 遙望白練一帶隱見於青林之表 促駕而進 至于瀑布下 却立而觀之 則蓋天磨聖居兩山對峙而 關開 奇峯亂出若劍戟然 有川自大興洞合諸溪而到兩山間 湍瀦成淵 中挿石島 狀如千斛大甕 沈沈無底 攖不可俯視者朴淵也 其流溢而爲瀑布 瀉于懸崖 崖石爲水所激 白如截玉 水勢長可四五百尺 落爲深潭者 所謂姑母潭也 崖之左右 松杉楓梓挺出而蔚然 境界幽奧 而實爲明麗洞豁 寒波所照 草木含輝 眞天下絕勝也”;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五月十五日 “朝 府官尹經歷李都事來于書狀之寓 余往與別 自大平館 歷迎賓館 北行四十餘里 天早已久 石路鞏確 馬不能前 前途塵漲 遂吟一絕以自遣 瓢淵不必勝牛溪 石路難容接馬蹄 要覓奇觀憚受益 此生行止可堪堪 入于瀑布 牛峯縣令尹伊獻納卓然之父也 先在坡州 獻納謂一行曰 海西方伯 欲見白沙汀 而以天旱停行云云 蓋欲勿往 而使欲必往 尹乃遣人先通于牛峯 盛備酒饌以俟 坐于松下飲訖 麟察訪柳永成參 與書狀同登潭上 將欲往觀大興泉石 芒鞋布衣 渴則手掬清流 勞則憩于林巖 瀟灑之味 雖欠於辛秋 而客路炎天 猶足少慰也”.

95)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六月九日.

96)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六月二十八日.

97)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七月十四日.

98) 趙憲, 『重峯集』 권11, 『朝天日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二十九日.

장황한 어조로 설명하였다.⁹⁹⁾ 같은 날짜 허봉의 『조천기』를 찾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조헌과 허봉은 1566년(명종 21) 오랑캐의 침입과 廣寧衛 中後所城의 함락과 백성의 殺傷이란 동일한 소재를 다루었지만,¹⁰⁰⁾ 전자의 서술은 분량과 밀도 면에서 후자를 압도한다. 義兵 봉기와 殉節로 이어지는 조헌의 후일 행적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지점이라 생각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明文廟從祀 질의와 관련된 조헌의 행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간 조헌의 관련 활동은 머리말에서 보았듯이 조선의 문묘제 개혁과 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의 문묘 종사, 즉 四賢從祀라는 맥락에서 주로 고찰되어 온 것 같다. 필자 역시 이러한 견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 조헌은 성절사행 당시의 국자감 견문과 정보를 토대로 조선의 문묘제 개혁을 건의했기 때문이다.¹⁰¹⁾ 그가 귀국 직후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판단한 8조로 구성된 상소문중 첫 번째 사안이 聖廟配享이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¹⁰²⁾

조헌은 1530년(중종 25), 즉 嘉靖 9년에 이루어진 명의 문묘제 개혁을 대폭 참조하여 조선의 문묘를 一新하고자 하였다. 명 문묘제 개혁의 내용을 대략 추리면, 孔子의 位號를 大成至聖文宣王에서 至聖先師孔子로 바꾸는 것, 문묘의 편액을 大成殿에서 先師廟로 고치는 것, 顏子 이하 祭享 儒賢의 封爵을 제거하는 것, 配享된 儒賢의 塑像을 제거하고 나무 神主로 대체하는 것, 公자·顏子·曾子·子思·孟子的 아버지를 제향하는 啓聖廟를 설치하는 것, 入出후 인물을 조정하는 것 등이었다. 이에 따라 公伯寮·秦冉·顏何·荀卿

99) 趙憲, 『重峯集』 권11, 『朝天日記 中』 萬曆二年甲戌九月十二日.

100) 許篈, 『荷谷集』, 『朝天日記 中』 萬曆二年甲戌七月十六日 “安廷蘭說嘉靖丙寅閏十月初五日 達子圍城穿數十穴以進 殺戮千餘 虜去者亦如之 留三日而去 廣寧摠兵官王治道領兵一萬來救不及 廷蘭過其地 見焚蕩之餘烟焰未息 流血盈路 達子所殺嬰兒無算 或斬頭 或斫腰 溢於海子云”;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七月十六日 “丙寅年十月 達賊陷城 被害者千人 被虜者千人 逃免者二千 守堡官棄走得免 後現止于充軍 于時城中小兒走死河邊者 幾至百餘 賊見小兒 多於城上倒拋于濠 賊退後 逃者還家 白髻撫心 尋夫哭兒之狀極慘云…這裏人多欲要功 例斬中國人以謂達人而獲賞者 純彥曰 乙卯南征之變 有一官員之子 懸于川邊 有一軍斬作倭首而獻之元帥 與此無異也 余嘆曰 尙首功之弊 一至於反戕同類 嗚呼痛哉 嗚呼痛哉”.

101) 이하 관련 내용은 주로 김문식, 앞의 논문, 2020, 13~19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02) 趙憲, 『重峯集』 권3, 『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 甲戌十一月.

·戴聖·劉向·馬融·賈逵·何休·王肅·王弼·杜預·吳澄 등 13인이 출향되었고, 林放·蘧援·鄭衆·盧植·鄭玄·服虔·范寧 등 7인이 강등되어 각자 고향에 소재한 鄉祠에서만 제향하도록 하였으며, 后蒼·王通·胡瑗·歐陽脩 등 4인은 새로이 입향되었다.¹⁰³⁾ 조헌은 여기에 덧붙여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 이황 등 4賢의 문묘종사를 선조에게 건의하였다.¹⁰⁴⁾ 그러나 時王之制를 근거로 한 조헌의 개혁안 8조목 전체는 국왕 선조의 “천백 리 풍속은 서로 다른 것인데, 만약 風氣와 習俗이 다른 것을 헤아리지 않고 억지로 본받아 행하려고 하면 끝내 소요만 일으킬 뿐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批答과 함께 거부되었다.¹⁰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헌의 명 문묘제 관찰과 조선의 문묘제 개혁이 밀접한 연관하에 진행된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실제로 선조가 조헌이 성절사행을 떠나기 전에 명 문묘 位版의 규격을 조사해 오라는 教旨를 내린 사실도 확인된다.¹⁰⁶⁾ 그러나 조헌의 명 문묘종사 질의와 관련된 활동을 조선의 문묘제 개혁을 위한 정보나 동향 파악의 차원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조헌의 성절사행 이전에도 조선은 명의 문묘제 개혁과 관련된 정보를 상당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490년(성종 21) 조선 사신의 명 국자감 방문 사실이 실록에 최초로 나오는데,¹⁰⁷⁾ 1522년(중종 17) 이후로는 조선 사신의 국자감 관광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자감을 방문한 조선 사신은 양국 문묘의 공통점과 차별점에 대해 감상평을 남기곤 하였다.¹⁰⁸⁾ 따라서 1530년(중종 25)에 시행된 명 문묘제 개혁의 대강도 꽤 이른 시기에 조선에 알려진 상태였으며, 그 대응책이 논의

103) 許箕,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二十七日.

104) 趙憲, 『重峯集』 권3, 『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 甲戌十一月.

105) 『宣祖修正實錄』 권8, 선조 7년 11월 辛未(1일).

106) 위의 각주 “臣伏觀今年五月所下位版尺寸考啓之教 而想臣所見 則隆慶年間出來太學志所記尺數 定是周尺 而不爲布帛尺也明矣”.

107) 『성종실록』 권238, 성종 21년 3월 丙辰(4일).

108) 조선 사신의 국자감 관광에 대해서는 구도영, 『조선 전기 對明사신의 북경 관광지와 관광 사회』, 『역사학보』 244, 역사학회, 2019, 167~175쪽 참조.

되거나 개혁안이 건의될 정도였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天使가 성균관에서 謁聖한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孔子를 至聖大成文宣王이라고 부르나 중국에서는 칭호를 낮추어 公이라 부른다고 하니, 사신이 혹 ‘중국에서는 이미 칭호를 낮추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王爵을 그대로 두었느냐?’고 물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였다.¹⁰⁹⁾

欽問使 李清을 思政殿에서 인견하였다. 이청이 “文廟에 참배할 때 공자의 位牌에 先師라고 호칭되어 있었으므로 신이 물으니, 황제가 文宣王이라고 하면 王號이므로 天子보다 낮지만 先師라고 하면 천자의 위에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啓聖祠라는 것이 있는데…”라고 아뢰었다.¹¹⁰⁾

漢吏學官 林芑가 상소를 올렸다. “…세제는 文廟 神主의 글을 고치는 일입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先師에게 釋菜하는 글은 禮經에서 비롯된 것이요, 이른바 先師라는 것은 先農·先蠶과 같은 것으로 그 위에 다른 名號를 덧붙일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漢 明帝가 『禮經』의 말을 따서 처음 공사를 先師로 높여 제사했으니, 그 禮가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宇文周氏가 이 뜻을 모르고서 망령되게 文宣王의 호를 덧붙였으니, 매우 정당하지 못한 일입니다…”¹¹¹⁾

둘째, 명의 문묘제 개혁에 대응하는 조선의 태도이다. 시왕지제인 명의 문묘제가 조선의 문묘제 개혁에 전범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했듯이 개별의 시왕지제, 즉 明제가 아무런 고민이나 검토 없이 자동적으로 수용되는 사례는 드물었다.¹¹²⁾ 주지하다시피 조헌의 상소 이후에도 조선의 종묘제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가 숙종대 이르러서야 부분적으로 明제가 반영되며 종결되었다.¹¹³⁾ 啓聖廟의 설치나 配享儒賢의 入

109) 『중종실록』 권83, 중종 31년 12월 己酉(28일).

110) 『중종실록』 권92, 중종 34년 11월 辛丑(8일).

111) 『명종실록』 권21, 명종 11년 10월 癸巳(8일).

112) 최중석, 앞의 논문, 2010; 허태구, 앞의 논문, 2020 참조.

出후이 일부 이루어졌지만,¹¹⁴⁾ 공자의 위호나 문묘의 편액은 이전과 같았다. 심지어 임진왜란의 발발로 인하여 명의 대규모 군사 원조를 받은 직후에도 명제를 반영하라는 經理 萬世德의 문묘제 개혁 요구를 조선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601년(선조 34) 1월 만세덕은 시왕지제 준용의 당위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며 조선 문묘의 공자 위호 개정, 배향 유현의 封爵 삭제, 胡居仁·陳獻章·王守仁·薛瑄 등 4賢의 문묘종사를 요청하였다.¹¹⁵⁾ 이에 대해 예조는 4현의 종사에 대해서는 대신과의 토의를 건의하였지만,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명제의 준용을 지지하였다. 특히 문선왕이 ‘萬世의 素王’이란 의미로 근거 없는 호칭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至聖先師의 위호가 師道로 존송한 것이라 그 높임이 왕의 칭호보다 크다고 이해하였다.¹¹⁶⁾

1604년(선조 37) 문묘제 개혁 논의가 다시 재개되자 예조는 큰 사안을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명제의 즉각적 반영을 통한 문묘제 개혁과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등 5현의 종사를 건의하였다.¹¹⁷⁾ 논의에 참여한 대신들은 대체적으로 예조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한편 영의정 尹承勳, 좌의정 柳永慶, 우의정 奇自獻은 陸九淵·王守仁 등의 종사는 올바르지도 않고 公論에 부합하지도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며 좀 더 시간을 갖고 널리 의견을 구할 것을 건의하였다. 선조도 이들의 의견을 따랐다. 반면 이 기사에 부기된 史論은 시왕지제인 明제의

113) 조선후기 문묘제 개혁의 과정과 종결은 정옥자, 『朝鮮後期 文廟祀典의 釐正-中國儒賢의 陞黜에 關聯하여-』, 『한국문화』 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6; 박종배, 『명 가정 9년의 문묘 사전 개혁과 조선의 대응-묘호 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동양학』 3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3; 우경섭, 『宋時烈的 道統論과 文廟釐正 논의』, 『한국문화』 3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김우진, 『숙종대의 문묘(文廟) 정비와 그 의의』, 『역사와 현실』 119, 한국역사연구회, 2021; 정두영, 『16세기 후반 조선학계의 양명학 비판론과 문묘제도 개정 논의』, 『역사와 실학』 76, 역사실학회, 2021 참조.

114) 물론 이것도 명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115)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1월 辛丑(2일).

116)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1월 癸亥(24일).

117) 『선조실록』 권180, 선조 37년 10월 癸亥(17일) “禮曹【判書許箴 參判申湜 參議宋駿】啓目…但已萬經理【名世德 以中朝人 官經理我國者】 旣膺經理朝鮮之命 戎事之假 至於移咨 其欲進我東於中國之意者甚盛也 當初不知之時 則已矣 及今既知之後 其一遵天朝成式 似不當復有他議 先師位號 從祀陞黜 一從會典所載施行似當”.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지성선사라는 위호가 공자의 위대한 功德을 형용하기에 적당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였다.¹¹⁸⁾ 핵심 쟁점중 하나는 至聖先師의 위호가 문선왕에 비해 격이 높은 칭호가 맞냐는 것이었다.

이렇듯 시왕지제 준용의 당위성을 당대인이 공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안을 처리할 때에는 찬성이건 반대건 간에 窮理와 熟議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었다. 조헌 또한 명의 문묘제 개혁을 접했을 때 의리와 명분 등을 따지는 공리의 과정을 거쳐 조선에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왕수인과 맥이 닿아 있는 陸九淵의 출향을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 명의 문묘제 개혁 조치는 시왕지제이자 의리·명분에 합당한 것이었기에 적극 수용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문묘제 개혁 논의로 국한하더라도, 明制이지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화는 적지 않게 남아 있다.¹¹⁹⁾

위와 같이 조선과 명 문묘제 개혁 시행은 동시성과 연동성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꽤 거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헌의 관련 활동에는 특이한 점이 눈에 띈다. 바로 禮部提督會同館主事 錢拱辰에게 보낸 9조목의 질의서이다. 전공진은 며칠후 답변서를 조헌에게 보냈고, 조헌은 그것을 別幅에 자세히 적어 놓았다.¹²⁰⁾ 전공진의 답변서는 조헌이 보낸 질의서와 함께 『중봉집』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¹²¹⁾

濂溪(=周敦頤), 明道(=程顥), 伊川(=程頤), 晦菴(=朱熹)는 다같이 道學이 끊어진 세대에 태어나서 멀리 공자의 도통을 접촉하였으니 후학들로 하여금 마음

118) 위의 각주, “史臣曰…自生民以來 未有盛於夫子 傳百王之心法 立萬古之綱常 其功之盛德之至 比如天地之大 日月之明 無得以明焉 則苟非德足以知聖人 固難輕讓位於千載之下矣 況中朝法制 雖曰盡善 比之三代 不能無愧 則至聖先師四字 果足以形容夫子之盛德 而不惑於百世之後乎”.

119) 『중종실록』 권83, 중종 31년 12월 己酉(28일) “領議政金謹思等議 中朝降文宣王爲先師 揆以歷代尊崇之意 恐未爲得 雖改號於國子監 無頌天下並改之命 我國不可傳聞而效尤也”; 『선조실록』 권5, 선조 4년 12월 辛卯(3일) “上曰 中朝取舍 未必盡當”;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11월 戊午(9일) “領議政金壽恒議曰…今之論者 或以爲大行陸黜 一遵中朝之制 則可也 今既不然 只從其黜 未免有異同 而於其黜之中 有所取舍 尤涉非宜 抑臣愚意有所不然者 其所從違 亦有不可一遵中朝之制者 如陸九淵王守仁異端之學 惑世誣賢者 其可以中朝之增祀 而一例苟從乎”.

120) 趙憲, 『重峯集』 권11, 『朝天日記 中』 萬曆二年甲戌九月六日.

121) 趙憲, 『重峯集』 권9, 『與皇明禮部提督會同館主事 錢拱辰 論聖廟從祀書 甲戌』.

이 열리고 눈이 밝게 하였으며, 만고에 행하여여 할 道德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만일 이 네 분이 아니었다라면 오늘날의 人倫 道德은 보잘 것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덕을 헤아리면 진실로 孔子의 七十弟子에게 뒤지지 않을 것이며, 그 功으로 말하면 또한 孟子에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마땅히 配享의 列에 陞祀되어야 할 것 같은데도 文中(=陳亮)과 安定(=胡瑗)의 아래에다 나란하게 位次를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¹²²⁾

위의 사료는 질의서의 첫 조목을 인용한 것이다. 조선의 현안 해결을 전제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질문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직설적이고 설득조의 語勢가 감지된다. 질의서 전체는 周敦頤, 程顥, 程頤, 朱熹의 문묘 位次 개정을 필두로 대부분 명 문묘 종사 인물의 입·출향 是非를 가리는 내용이며, 전반적 논조 역시 첫 조목과 대동소이하다. 조헌은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는 의혹이 없지 않아[而井底蛙見 則不無所惑]’ 드리는 질문이라 말하며 질의서를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일상적 謙辭로도 보이지만 명의 조치가 자신이 학습한 보편적 가치 체계와 부합하지 않았음을 애둘러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조헌의 질문서가 당시의 사행 임무와 무관한 개인적·돌발적 행위이자 허봉의 경우처럼 중화로 표상되는 同道·斯文의 공동체를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아래 사료의 행간에서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文廟從祀에 의문이 나는 부분을 기록하여 白元凱를 시켜 질문을 올렸는데 제독이 받아 갔다. 저녁에 上使(=박희립)께 알리니 상사가 “(우리) 조정에서 너에게 이 일을 아울러 質正하도록 시켰는가”라고 물었다. 대개 이를 매우 싫어하는 분위기였다.¹²³⁾

孚敬은 곧 張璠인데, 부경이란(명) 世宗이 下賜한 이름이었다. 이 일은 지극히 중요하고 또 큰 것이었는데도 한 사람의 간사한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졌으니, 世道

122) 위의 각주.

123) 趙憲, 『重峯集』 권11, 『朝天日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三十日.

를 위하여 깊이 한심스러운 일이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을 가지고 말을 버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제도는 뒤에 오는 君子가 참작해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¹²⁴⁾

우선 첫 번째 사료를 통해 그가 질의서를 작성한 시점이 북경 체류 기간의 끝자락인 8월 30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행단이 회동관에 도착한 시점이 8월 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¹²⁵⁾ 그 사이 질정관인 그가 담당한 공식적이고 주요한 업무는 다 처리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질의서의 작성은 미리 계획된 것이라기보다 8월 20일 성절사행단의 국자감 방문과 연관된 우발적이고 개인적 차원의 행위로 추정된다. 상사 박희립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이를 방증한다. 사행단의 최고 책임자인 박희립의 입장에서 보면 조헌의 쓸데없는 행위가 명 측의 불쾌감을 유발하여 사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여 화를 냈다고 볼 수도 있다.

두 번째 사료는 허봉이 국자감을 방문한 후 명 문묘제 개혁의 始末을 기록한 『皇明名臣錄』이란 책을 보고 난 뒤 자신의 所懷를 피력한 부분이다. 中華라는 보편 문명을 공유한 조선국의 士人이 上國인 명의 문묘제 개혁이 世道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질의서의 서두에서 조헌은 허봉과 동일한 우려와 자세를 명확히 드러낸 바 있다.¹²⁶⁾ 그들에게 명은 단순한 異國이자 大國이라기보다 중화 문명의 발상지로서 조선과 마찬가지로 禮樂典章이 번창해야만 하는 영역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과 명은 統天下의 일원으로서 學問과 禮敎가 융성해야 하는 곳이었고, 그들은 여기에 일조할 각자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심성을 외적 행위로 실천하는 데에

124) 許篈,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二十七日.

125) 趙憲, 『重峯集』 권11, 『朝天日記 中』, 萬曆二年甲戌八月四日.

126) 趙憲, 『重峯集』 권9, 『與皇明禮部提督會同館主事 錢拱辰 論聖廟從祀書 甲戌』, “朝鮮國差來陪臣質正官校書館著作趙憲端肅再拜 謹奉書于南宮先生閣下 伏以偏方下土 遠滯聲教之漸 竊聞孔孟之道 非程朱則不傳 而草廬之後 異論紛興 至使朱子之教 不行于世云 聽雖無稽于流聞 事則有關乎吾道之盛衰 私竊痛心 而跡同繫匏 思欲就正于有道 而遽嘆風馬之不及者久矣”.

는 개인차가 존재하였고, 조헌과 허봉은 상당히 돌출적이고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고 생각한다.¹²⁷⁾ 조헌과 허봉이 사행로를 오가며, 국경을 구분하지 않고 學徒의 勉學과 求道를 장려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심성의 소산으로 보인다.

張添福은 아직 冠禮를 하지 않았고 나이는 19세이며 성품이 온아하였다. 나는 조여식(=조헌)과 같이 나와서 뒤뜰에 앉았는데 장침복이 와서 봄으로 燒酒와 油蜜菓를 대접하였다. 그는 곧 가지고 가서 그 어미에게 드리고 조금 있다가 술 한 병과 외[瓜] 한 그릇을 나에게 보내왔다. 우리들은 그의 정성을 가사히 여겨 학문을 하라고 격려하였더니, 밤에 읽고 있는 책자를 가지고 왔다.¹²⁸⁾

石子河를 건너서 高嶺城의 남쪽에서 유숙했다. 뽕씨 집에서 숙박했다. 필씨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었는데 글을 잘 읽고 對句를 잘 풀이했다. 내가 기뻐하며 권면하자 필씨도 흡족해하며 사례했다.¹²⁹⁾

아침에 袁鐸이 나를 만나러 왔기에 부지런히 독서할 것과 효성스럽게 부모님을 섬길 것을 권했고, 붓을 주어 장려했다.¹³⁰⁾

4. 맺음말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중국과 공유하였던 中華主義의 세계관과 天命 사상

127) 유사한 사례로는 1801년(순조 1) 進賀副使로 파견된 吳載紹가 북경에 있는 文天祥의 사당인 文山廟를 복구하고자 淸人에게 제안한 것이 주목된다(후마스무, 앞의 책, 2019, 626~627쪽 참조). 문천상은 1279년 南宋 멸망 이후에도 원의 귀순 권유를 거부하고 순절한 漢人 재상으로 유명하다. 후마스무는 이러한 행위를 당대 조선인의 反滿 감정과 자부 의식이란 맥락에 국한해 이해하였지만, 필자는 더 근본적 動因이 허봉-조헌과 유사한 심성과 태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조선 사신이 청에 존재하는 중화 유적의 퇴락과 훼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것은 일상적이었지만, 그 복구를 위해 청인에게 서신과 자금을 보낸 오재소의 행위는 매우 특이한 사례로 보인다.

128) 許筭, 『荷谷集』, 『朝天記 上』, 萬曆二年甲戌六月二十一日.

129)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七月十七日.

130) 趙憲, 『重峯集』 권10, 『朝天日記 上』, 萬曆二年甲戌七月二十一日.

에 의하면, 모든 인류가 살고 있는 天下는 문명 중화인 華와 비문명 이적인 夷로 양분된다.¹³¹⁾ 그리고 천하는 세계의 근원인 天으로부터 통치의 정당성, 즉 天命을 부여받은 有德자가 다스리거나 다스려야만 하는 곳이다. 이 천하의 君主를 天子라 하는데, 그의 의무는 화의 영역인 중국뿐만 아니라 오랑캐의 영역에 속한 백성까지도 德과 禮에 의해 教化시켜 인간다움을 회복시키고 천하를 太平스럽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천자가 시행하는 천하 통치의 궁극적 지향은 華와 夷를 차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구분조차 없애는 데에 있었다. 一視同仁, 王者無外, 天下一家 등은 천자의 이상적 정치를 표방하는 말로 널리 언급되었는데, 그 달성 여부는 朝貢 제도에 수반된 四夷歸服的 규모와 빈도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선행 연구에서 조선인의 사행은 중화 문물의 전파와 수용이라는 단선적 차원에서 이해된 측면이 강하다. 혹은, 사행 기록상에 보이는 同文同軌의 보편적 문명 의식을 조선 사행단이 공유한 지점 또는 그들이 지향한 이상적 중화와 현실적 중국인 명나라와의 차이와 갈등에 주목하였다고 거칠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1574년의 성절사행은 조·명 양국의 교류와 접촉에 좀 더 풍부한 의미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허봉은 성절사행 기간 내내 명나라의 士人을 만나 양명학이 이단임을 논증·설득하려고 애썼다. 조헌 역시 이와 유사하게 명나라의 문묘 제도를 자세히 탐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기에 從祀된 학자들의 入出享 是非를 명 측에 따져 물었다.

조헌과 허봉의 이러한 활동은 현대인의 기준에서 보자면 자국의 국익 추구라는 외교사절의 공식 업무 범위를 벗어난 오지랖 넓은 행위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당대 조선인이 중화를 보편 문명으로 수용하고 추구함과 동시에 同文同軌의 문명 의식을 중국인과 공유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발화와 행위는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 조헌과 허봉에게 명나라는 단순

131) 전근대 중국의 華夷觀과 天命 사상에 대해서는 이성규, 『중화질서』, 『역사용어사전』(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와타나베 히로시(渡邊浩), 김선희·박홍규譯, 『일본 정치사상사(17~19세기)』,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23~41쪽, 119~136쪽 등 참조.

한 異國이나 大國이라기보다 자신들이 보편이라고 믿는 중화 문명의 발상지였다. 따라서 그들은 聖地와 같은 이곳이 異端과 邪說로 오염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禮와 道, 義理와 廉恥, 道學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중국과 공유하고 있었던 조헌과 허봉에게, 禮敎의 구현 범위는 조선으로 국한되지 않고 명나라까지 포함되었다. 이것이 그들이 설정한 문명 중화의 天下였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中華의 이상과 현실 中國의 불일치를 관찰했을 때 그들은 분노와 비판의 감정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은 조선의 현실에 자부심을 느끼곤 했다. 나아가 그들은 오염된 중화 문명의 聖地인 明을 구출하는 데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양명학을 변척하고 명의 문묘종사에 대해 질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활동은 개인적이고 우발적 차원에서 수행되었으며, 어떤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고 추진된 것은 아닌 단발성의 행위에 가까웠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조헌과 허봉이 자신들이 상상하던 중화의 발상지를 체험하며 더할 나위 없는 감동과 만족을 느끼기도 하였다는 사실이다. 같은 천하를 공유하는 중화인의 일원으로서 그들은 조선의 事大 명분과 의리에 어떤 불만이나 굴욕감도 느끼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이 보편으로서 중화 문명에 대한 회의나 불안을 느꼈다고 보는 선행 연구의 견해는 다소 과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조헌과 허봉의 사행 기록을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새로운 시각에서 정리해보았다.

위와 같이 본 논문은 허봉의 양명학 변척 및 조헌의 문묘종사 질의의 성격을 당대인의 심성과 연관하여 재고찰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확대하면 조선시대 宗系辨誣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야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된다.¹³²⁾ 중화를 보편 문명으로 추구함과 동시에 명과 조선을 道와 禮가 구현되어야만 하는 동일 문명권으로 이해한 당대 조선인의 심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도는 결코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132) 종계변무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이하경, 『조선 후기 변무사건 연구: 영조 47년(1771년) 고세양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8-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9, 58~61쪽 참조.

■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朴齊家, 노도양·이석호譯, 『北學議』, 대양서적, 1972.
- 尹國馨, 『聞韶漫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趙 憲, 『重峯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_____, 중봉집번역발간추진회譯, 『趙憲全書』, 탐구당, 1973.
- _____,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譯, 『朝天日記』, 서해문집, 2014.
- 崔 溥, 박원호譯註, 『漂海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 許 蔚, 『荷谷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권선홍,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윤남한, 『朝鮮時代の 陽明學 研究』, 집문당, 1974.
-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지식산업사, 2010.
- 와타나베히로시(渡邊浩), 김선희·박홍규譯, 『일본 정치사상사(17~19세기)』,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禮), 그리고 중화(中華)』, 소명출판.
- 후마스스무(夫馬進), 정태섭 외 공역,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07.
- _____,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名古屋大學出版會, 2015.
- _____, 신로사 외 공역, 『조선연행사와 조선통신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 구도영, 『조선 전기 對明사신의 복경 관광지와 관광 소회』, 『역사학보』 244, 역사학회, 2019.
- 구지현, 『하곡(荷谷) 허봉(許蔚)의 조천록『조천기(朝天記)』의 위상과 의미』, 『한국문화연구』 66,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21.
- 권선홍, 『유교의 예(禮)규범에서 본 전통시대 동아시아국제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4.
- 김동진, 『許蔚의 大明使行과 陽明學 變斥』, 『문화사학』 21, 한국문화사학회, 2004.
- 김문식, 『趙憲의 文廟制度 논의와 중국학자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93, 조선시대사학회, 2020.
- 김성희, 『조헌상(趙憲像)의 변화를 통해 본 조선후기 시대정신의 추이』, 『역사와 현실』 93, 한국역사연구회, 2014.
- 김용덕, 『重峯 趙憲研究』, 『성곡논총』 5, 성곡학술문화재단, 1972.
- 김우진, 『숙종대의 문묘(文廟) 정비와 그 의의』, 『역사와 현실』 119, 한국역사연구회, 2021.
- 김인규, 『重峯 趙憲 改革思想의 실학적 특성』, 『동양철학연구』 41, 동양철학연구회, 2005.
- 김지현, 『趙憲의『朝天日記』에 대한 소고』, 『온지논총』 40, 온지학회, 2014.
- 김태년, 『16世紀 朝鮮 性理學者들의 陽明學 비판 연구』, 『한국사상사학』 19, 한국사상사학회, 2001.
- 도현철, 『高麗末期 士大夫의 對外觀-華夷論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86, 진단학회, 1998.
- 박명숙, 『華夷論 관점에서 바라본 허봉『朝天記』의 특징』, 『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
- 박성봉, 『(동환봉사) 해제』, 『국역 연행록선집』 II, 민족문화추진회, 1976.

- 박종배, 『명 가정 9년의 문묘 사전 개혁과 조선의 대응-묘호 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동양학』 3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3.
- 오세창, 『趙憲의 社會經濟思想』, 『대구사학』 7·8, 대구사학회, 1973.
- 우경섭, 『宋時烈的 道統論과 文廟釐正 논의』, 『한국문화』 3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 윤남한, 『(하곡조천기) 해제』, 『국역 연행록선집』 I, 민족문화추진회, 1976.
- 이상익, 『“東還封事”를 통해 본 重峯趙憲의 改革思想』, 『동양문화연구』 10,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2.
- 이상규, 『중화질서』, 『역사용어사전』(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하경, 『조선 후기 변무사건 연구: 영조 47년(1771년) 고세양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8-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9.
- 이호윤, 『“하곡선생조천기(荷谷先生朝天記)와 중국인식』, 『아세아연구』 59-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 장안영, 『“東還封事”에서 본 『朝天日記』의 특성 연구』, 『퇴계학논총』 25, 퇴계학부산연구원, 2015.
- 전재성, 『조천록을 통해 본 허봉, 조헌의 조명 관계 인식』, 『사행의 국제정치-16~19세기 조선·연행록 분석』(하영선·이현미 편저), 고려대학교 아연출판부, 2016.
- 정두영, 『16세기 후반 조선학계의 양명학 비판론과 문묘제도 개정 논의』, 『역사와 실학』 76, 역사실학회, 2021.
- 정옥자, 『朝鮮後期 文廟祀典의 釐正-中國儒賢의 陞黜에 관련하여-』, 『한국문화』 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6.
- 주용성, 『栗谷 李珣과 重峯 趙憲의 改革論 比較-『萬言封事』와 『東還封事』를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28, 간재학회, 2012.
- 채웅석, 『원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 현실』 40, 한국역사연구회, 2003.
- 최중석, 『조선초기 ‘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 『조선시대사학회』 52, 조선시대사학회, 2010.
- _____, 『조선 초기 국가 위상과 ‘聲教自由』』,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2013.
- _____, 『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의 메커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 『조선시대 예교담론과 예제질서』(박중천 편), 소명출판, 2016.
- _____, 『고려후기 ‘자신을 泯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 _____, 8장 『13~15세기 천하질서와 국가 정체성』, 『고려에서 조선으로-여말선초, 단절인가 계승인가』(정요근 편), 역사비평사, 2019.
- 최진경, 『許篈의 『朝天記』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하 나, 『16세기 조-명 학자 사이의 학술논쟁-주자학 양명학 논쟁을 중심으로-』,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2018.
- 한 매, 『허봉 『조천기』의 연구』, 성균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허 준, 『朝鮮 中宗-宣祖代 鄉約 施行 論議의 政治的 意味』, 『지역과 역사』 47, 부경역사연구소, 2020.
- 허태구, 『重峯 趙憲의 中國과 中華』, 『한국학연구』 5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 후마스스무(夫馬進), 『趙憲 『東還封事』に見える趙憲の中國報告』, 『中國邊境社會の歴史的研究』(谷川道

雄 編), 京都: 京都大學文學部, 1989.

_____, 『萬曆二年朝鮮使節の『中華』國批判』, 『山根幸夫教授退休記念明代史論叢』, 東京: 汲古書院, 1990.

The Jo Heon and Heo Bong's Diplomatic Journey for the Ming Emperor Shinjong's Birthday in 1574 and Zhonghwa(中華) as Universal Civilization

Huh, Tae-koo*

This paper tried to examine the activities of Jo Heon(趙憲) and Heo Bong(許篈), who were members of Diplomatic Journey for the Ming Emperor Shinjong's Birthday in 1574, in the mentality of the contemporary people who pursued Zhonghwa(中華) as a universal civilization. Through this,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Heo Bong(許篈)'s refutation of the philosophy of Wang Yang-ming(陽明學 辨斥) and Jo Heon(趙憲)'s inquiry into the Ming dynasty's enshrinement of Confucius's Shrine were clarified. Furthermo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eople's envoy records were summarized from a new perspective

Key words: Jo Heon(趙憲), Heo Bong(許篈), Zhonghwa(中華), Universal Civilization, Diplomatic Journey for the Ming Emperor Shinjong's Birthday(聖節使行), Refutation of the philosophy of Wang Yang-ming(陽明學 辨斥), Inquiry into the Ming Dynasty's Enshrinement of Confucius's Shrine (明文廟從祀 질의)

논문투고일 : 2023년 1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3년 2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2월 22일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Catholic of University of Korea.